

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

NEW
순복음Life
제43호

발행일 : 2019.11.10.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보듬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밀알청년회 서기 가경연 청년입니다.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문서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른들께서 보시기엔 길지 않은 20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성도님들 앞에서 풀어 보려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애써 더듬어 보니 지금의 교회가 있기 전 다른 교회에 짧게 다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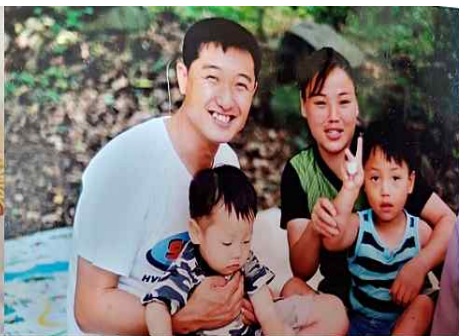


교회에 소속된 어린이집을 다녔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는 내성적인 성격인 것은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렸을 때에는 지금보다 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 제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관심 갖어 주셨다면 조금은 외향적인 모습을 갖추고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일일이 사랑을 베푸시거나 따뜻하게 반겨주지는 못하셨습니다.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린아이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잘 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어리고 내성적이다 보니 그 성도님들의 친절함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집과 거리가 꽤 멀었는데 차량 운행이라던가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가 재밌다는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니 어린 마음에도 교회가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는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당진순복음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전도사님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용돈벌이 겸 작게 운영하시던 가게에 자주 왕래를 하셨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면서 저를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전도사님의 딸인 이민애 청년과 같은 반이 되기도 하여 운동회 때 함께 점심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기도와 인도하심으로 친구 민애 손을 잡고 지금의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건물도 낯설었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도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학교시절 작은 일에도 많이 울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어르고 달래주시며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 주셨습니다. 특히 김미진 집사님께서 몇 년간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잘 챙겨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그때 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 보니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던 한예원 청년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민애와 예원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교회 주일학교를 정말 신나고 즐겁게 다녔습니다.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다음 교회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었고 그 어떤 일 보다 교회 오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동인 저에게 가족과 같은 많은 교회 언니, 오빠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지금 청년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기도로 또 헌신으로 보듬어주신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셔서 제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집사님이 되면 지금의 우리교회 집사님들처럼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집사님



1. 김희주 집사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구미에서 직장 다닐 때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났어요.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와서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헤어졌죠. 그리고 서너 번 만난 후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2. 신혼생활은 행복하셨지요? 기억나는거 말씀 해 주세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즈음이었었는데 남편의 사업파트너와 저희가 함께 살았어요. 한 1년 가까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신혼 같지 않았고 시집살이 아닌 남편 친구살이를 했다고 할 수 있죠.

3. 남편 되시는 김희주 집사님은 한결같은 분이신가요? 처음과 지금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씀해주세요.

같은 점은 우직함 이구요. 다른 점은 전에는 보수적이고 욕하는 성격도 있고 고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 이후로는 온순하고 화도 안내고, 주위 사람 말도 잘 듣고 그런답니다.

4. 벌써 올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어요. 집사님의 올해의 이루고 싶은 소망은 뭐였어요?

오랜 기간 집 장만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였어요.

5.집사님의 가정에 있어 우리교회란?

안식처입니다.

6.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르신 돌보는 일이 쉽진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를 가정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점이 힘들었어요.

7. 부부가 행복하시지요? 우리 부부 자랑 해 주세요.

둘이 같은 쪽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요. 거의 싸우지 않아요. 서로 잘하려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부부랍니다.

8. 요즘 세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무슨 기도 하세요?

상윤이는 예배생활 잘하고 말은 사역에 충성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구요. 상우는 학교생활 잘 하고 하나님 믿는 상우를 잘 이해해 주는 친구가 생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지아를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장 하길 기도해요. 친구도 세상친구도 있겠지만 믿음의 친구가 많이 생기길 기도하구요.

9. 50대를 앞두고 계신데요,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협심증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몸으로 느끼기는 이전보다 많이 피곤해요.

10. 집사님은 교회 내에서 회계일을 꼼꼼하게 잘 보십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맡겨진 일을 잘 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 하려고 해요. 그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11. 살면서 주님을 외쳐 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님을 부르신 일이 있으세요?

제가 교회서 맡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12. 10월의 실천표어는 ‘네 삶을 비워라’ 입니다. 집사님은 무엇을 비우셨어요?

지금도 비우고 있는 중인데요. 아이들에 관한 욕심 그리고 매사에 걱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우려고 해요.

13. 집사님은 롤모델이 있으세요?

저는 롤모델이 계속 바뀌는데요. 지금은 김종숙 권사님요.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요.

14.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꼭 찾아보세요~~

15. 세상에서 둘도 없는 세 자녀 자랑 해 주세요 .

상운이는요~ 제가 의지하는 든든한 말아들입니다.

상우는요~ 제게 살가운 아들이예요. 엄마를 위로 해 주는 아들이고요.

지아는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딸이죠. 집안에 웃음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죠.

16. 올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신지요? 어떤 것으로 주님께서 그 가정을 채워 주셨나요?

건강축복을 주셨어요. 가족이 특별히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있어요. 다 같은 마음으로요.

17. 내가 바라는 내 가정의 이십년 후 모습을 스케치 해 주세요.

세 아이가 모두 결혼을 했겠지요?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 하나님을 믿어요. 손자 손녀도 있어요. 저는 그 모습에 행복해 하고 있어요.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간단한 초등학교 산수 문제이지만 많은 성인들이 답을 틀려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아래 수학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9-3 \div \frac{1}{3} + 1 = ?$$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분은
문서위원회로 오세요 공식알려드릴게요

기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의 때를 묻히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때로는 그것을 눈치 채지도 못하고 씻으려 하지도 않고

그 더러운 것을 묻히고 또 묻히고 살고 있음은 용서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진순복음 교회에 비전을 주심은 그것을 이룰 수 있음임을 믿습니다

50구역 300가정 1000명의 성도를 허락 하시옵소서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처럼

모든 성도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율직임이 있는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과 계획된 일들의 막힘으로 지친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

하루하루를 잠 못 드는 괴로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체험 있는 신앙 속에서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공화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청소년들이 상상 이상의 범죄로
사회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잃어가고
정치, 경제, 안보는 불안함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누구나 살기 좋은 나라요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이끌게 하시며
어른들의 올바른 생각으로 아이들이 잘 양육 되어지도록
지혜를 허락 하시옵소서



주님!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나라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릴레이

조명금 성도님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항상 웃으며 살았고 자신감 또한 넘치는 활기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또 나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 여기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병마는 가장 행복했던 저를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은 병으로 무너져 내렸고 마음은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괴로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 해 주던 사람들 중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 겪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나 혼자만이 싸워야 할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몸서리치며 괴로워 흐느껴 울던 그때서야 자만심에 가득했던 어리석은 저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님 제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때 김경숙 성도님의 도움을 통해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간간히 다니던 교회 생활과는 다르게 이제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성경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연약하며 가진 것 없던 제게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함을 다시금 주시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삶에 큰 행복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저는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에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아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주자 : 최은주 집사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일! 이른 아침 시간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끝나는 오후 서너시가 되기



까지 전봇대 전선 위의 참새처럼 나란히 앉아 쉴 새 없이 조잘조잘 거리는 목소리를 들어 보셨나요? 마치 이 조잘거리는 소리가 활기찬 찬양의 소리와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 짝짝 거리다가는 금세 성전 앞에 서부터 4층 유아실까지 구석구석 누비며 뛰어 다니느라 깨끗했던 양말은 벌써 새까맣게 변해버리곤 합니다. 교회를 참시도 조용하게 놔두지 않고 마치 생명이라도 붙어 넣는 듯 힘 있게 뛰어 다니며 교회를 더욱 맛깔나게 만드는 예쁜 꼬마 아가씨들 아시죠? 초등학교 1학년 슬예, 지아, 그리고 유치부 시은이가 그 유명한 한복 시스터즈입니다. 지금은 훌쩍 커서 교회 각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호흡이 있는 우리 청년들의 어린 시절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알곳고 개곳은 모습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납니다. 좀 더 자라면 이 언니, 오빠들처럼 예쁜 신앙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일꾼이 되겠지요. 장차 당진순복음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슬예, 지아, 시은이가 자라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합당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유초등부 소식

점점 두꺼운 외투를 찾게 되는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몸이 튼튼해야 영적 건강도 챙기기가 쉬운 법! 건강 꼭 챙기시고 10월 달! 다니엘 유초등부의 활동을 보며 좋은 영향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가을 야외예배를 나갔었죠?

이번에도 좋은 날씨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유초등부는 많은 게임과 선물을 준비했었는데요. 아이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아이들도 더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장년 여자축구 소식이 담긴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다음에는 유초등부의 소식도 신문에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즐겁게 준비 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 주 2부순서로는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청소를 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셋째 주에 있을 전교인 총동원 주일을 위해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교회 주변에 있는 잡초를 뽑았습니다. 풀 속에 사는 벌레들이 나올 때면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에게 담당된 구역을 청소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깨끗해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셋째 주 2부순서로는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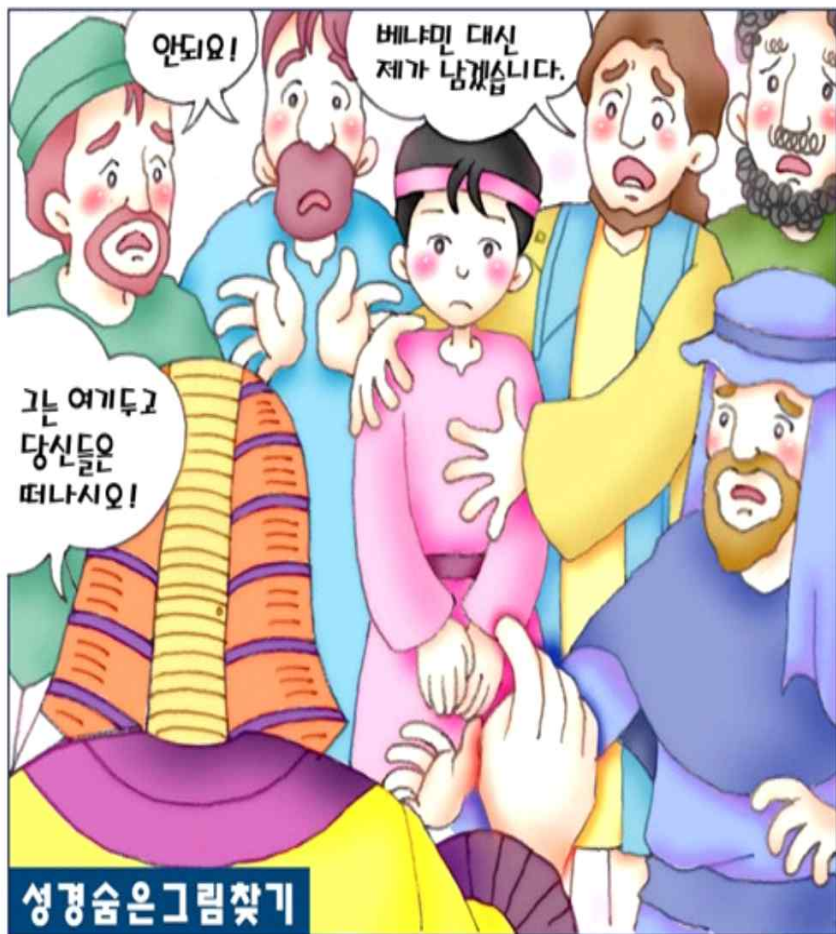
교회 생일을 맞아 어린이들도 9,10월 생일자들의 생일파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6월에 생일이었지만 나오지 못해서 축하를 못해준 6학년 소은이와 9월 생일인 2학년 원희가 함께 축하를 받았습니다. 생일 파티하면 음식이 빠질 수 없는데요. 이번에는 짜장 떡볶이와 빨간 떡볶이였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걱정했지만 역시나 우리 아이들은 그 많은 것을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번 생일파티도 풍족하게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주는 ‘속지마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탄을 신으로 모시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디어를 접할 때에는 항상 분별하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죠. 우리 아이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무심코 접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노래, 화보, 뮤직 비디오 등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것들에서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아이들은 한편으로 신기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항상 사탄이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게 유혹을 해 오는데요. 그 유혹을 거뜬히 이길 수 있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숨은그림찾기



성경숨은그림찾기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창 44장 33절)
(숨은그림 : 용수철, 쾌속정, 벌레먹은사과, 종이비행기, 계란뒤집게)

* 누가 했나요?

- essay.110 -



* 투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퍼즐

① 1		2				② 4				5
		③		3					④ 6	
⑤				⑥						
			7				⑦ 8			
	⑧	9			⑨ 10					
		⑩		11		12				
									13	
						⑪				
			⑫ 14						⑬	
		⑭								
			⑮	15						

가로

- ① 열 재앙 중, 8번 째 재앙.
- ② <요일4:16> 하나님은 ○○이시라.
- ③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지정해 주신 성.
- ④ 사람 사이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절. ○○범절.
- ⑤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 준 사람. 기생 ○○.

- ⑥ <시23:4> ~주의 지팡이와 ○○○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⑦ 천지를 창조하신 분.
- ⑧ 홍수 후,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증표’.
- ⑨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
- ⑩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 도시.
- ⑪ 믿음의 조상.
- ⑫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산.
- ⑬ 에서에게 팔죽을 팔아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
- ⑭ 노아의 홍수 이후 급격하게 줄어 든 것. 비슷한 말로 ‘연세’.
- ⑮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으로 되어있다.

세로

- 1.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고기.
- 2. 하나님과의 대화.
- 3.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 4. 사사시대를 기록한 성경.
- 5. 하나님의 두 성품 중 사랑의 하나님과 ○○의 하나님.
- 6.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 7. <창2:6> ○○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 8. 최초의 여자.
- 9. 성막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 10.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
- 11. 사과, 복숭아, 수박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
- 13. 노아의 세 아들. (순서대로 쓰시오.)
- 14.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패배한 성.
- 15.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함“을 뜻하는 단어.

< 애독자 특집 >

Don't
Touch!

이름: 민이름
소속: **샛별** 유치부
취미: 라이프지 **뚫어져라**
쳐다보기

엄마미!
라이프지
이제 넘쳐나요!
창고준비!
박스준비!



하나이모!
라이프지 언제나와요?

제가 이정도면
성도님들은 더
열심히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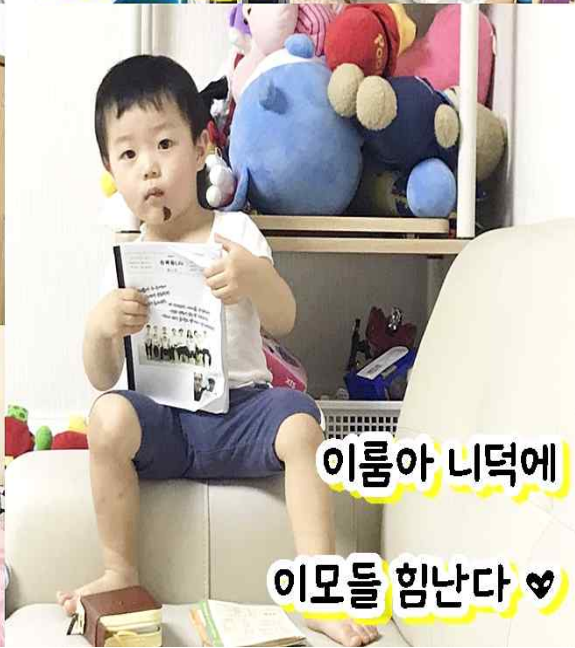
라이프지
젤 주앙



초집중



누가 말걸어유?
라이프지 보는데



이름아 니덕에

이모들 힘난다 ♡



타고난 표정



나도 몰랐던 내 표정 ?

인정하자

야외예배 빅재미 인정?

날씨도 좋고 인정?

어차피 다 알아요
엽사라고 부끄러하지 말아요







당진순복음교회 창립 26주년 감사예배





좋은날씨에 성도님들과
함께할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 행복한 하루 였습니다.



더 많은 추억거리 보러
GOGO!



가을의 향연

어느 덧 날이 추워지고 모든 만물은 때를 따라 옷을 갈아입는 시기가 돌아왔다. 꽃들도 나무도 모두 자신에게 맞는 계절에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시기 가을이 짙어졌다. 요즘 길을 나가 보면 울긋불긋 예쁘게 수 놓아진 나뭇잎을 볼 수 있고 마지막 힘을 다해 꽃 봉우리를 피운 코스모스와 국화 등 예쁜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새파란 가을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들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새로 뽐내며 손짓하는 유혹의 단풍들은 어느새 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그곳에 도착하면 손에 가깝게 잡힐 것만 같던 하늘의 구름들은 살랑거리는 코스모스와 들국화보다, 그리고 말록달록 어여쁜 단풍잎들보다 더 도도하게 그 모습에 난 그저 까르르 즐거운 웃음만 터뜨린다.

가을은 유독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때문에 두 겹께 옷을 끼어 입으면 한낮에는 땀을 흘리고 한낮을 생각하고 얇게 입으면 저녁에는 오들오들 떨게 되니 말이다. 요즘은 얇은 옷을 여러 겹 끼어 입고 날씨에 맞추어 입고 벗고 해야 감기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이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에 감기로 인한 육신에 연약함에 놓이지 않기를 기도한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보는 가을이라는 이 계절에도 잘 보여 진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더욱 풍성히 나타나길 원한다.



아름다운 이야기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죽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 시켜달라고 운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 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뻐하던지 나중에는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때 그는 나눌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9-3\div\frac{1}{3}+1=1$$

정답

시사용어 Briefing

가마우지 경제

가마우지 경제란 한국 수출구조의 취약점을 빚낸 말로, 1989년 일본 경제평론가가 자신의 책에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가마우지 경제는 본래 중국에서 가마우지라는 새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한 뒤,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가로채는 낚시법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완성품을 주로 수출하는데, 이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수 부품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다고 합니다. 즉 한국 부품, 소재 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수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내도 실익은 일본이 챙기게 됩니다. 최근 한일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얼마 전 국내 정치면을 시끄럽게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영역에 따라 의미가 다소 다른데요.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처리 하기 위한 제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선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유동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두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살롱문화

여전히 유행 중인 나홀로족과 상반된 트렌드 용어, 살롱문화란 ‘취향’을 중심으로 모인 소규모 모임을 의미합니다. 살롱은 과거 귀족들이나 예술가의 정기적 사교모임을 의미했지만, 요즘의 살롱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만든 모임을 일컫습니다.

커피 시음, 영화토론, 운동, 영화비평 등 그 범위는 무궁무진하며 오직 관심사나 취향만 공유할 뿐 사생활 공개는 지양합니다. 이런 라이프 트렌드에 따라 탈잉, 취향관, 문래당1063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옐로저널리즘

옐로저널리즘이란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범죄, 성적 추문 등을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보통 언론사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정확한 표현보다 형용사나 부사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추구해야 할 언론의 잘못된 행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 언론사를 고발하면서 옐로저널리즘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론사뿐 아니라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발행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저널리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짜뉴스 형태로 옐로저널리즘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삼시간에 퍼진 가짜뉴스는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사실 여부를 가리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시국을 둘러싼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닝아웃

미닝아웃이란 신념을 의미하는 Meaning과 Coming out의 합성 신조어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신념을 감추지 않고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소비자 운동입니다. 전통적으로 불매운동 혹은 구매운동이 이에 속하는데요. 최근엔 SNS의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더욱더 빠르고 간편하게 의견을 공유하고, 옷과 가방에 문구 혹은 로고를 넣어 패션처럼 착용해 신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동물보호, 일본 불매운동, 페미니즘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닝아웃은 사회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5대 1의 법칙



미국 워싱턴대학교 심리학과 존 고트먼 교수는 부부의 대화를 지켜보기만 해도 그 부부가 5년 안에 이혼하게 될지 아니면 행복한 부부생활로 유지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혼 적중률은 놀랍게도 95% 이상입니다. 특별한 능력자가 아닌데도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고트먼 교수는 700쌍의 부부의 대화를 조사했습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고트먼 교수는 이혼율이 ‘칭찬과 비난의 비율’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에 칭찬과 비난이 ‘5대1’정도인 부부는 10년 뒤에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율 차이가 심한 부부들은 이혼하거나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부부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자주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조건적인 칭찬만 하기 보다는 사랑이 동반된 조언을 함께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올바른 지도와 반성 그리고 지속해서 확인하는 서로의 사랑으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섯 번 칭찬하고 한번 조언해 보세요. 그렇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세요. ‘5대 1’의 법칙은 부부나 타인에게만 통하는 법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충고는 비밀스럽게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라 - 푸블리우스 시루스-

요나단(Jonathan)

뜻 : 여호와가 주심

성경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무려 13명이나 된다. 여기 소개하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며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말한다. 사울왕이 군사 일천명을 선발하여 요나단에게 맡긴 후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케 하여 블레셋의 침공을 막도록 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군대의 용사로 다윗처럼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싸운 신앙의 용장이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삼 14:6)

어떤 날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기 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 안된다는 금식령을 선포했다. 요나단은 이 선포를 듣지 못하고 지팡이로 꿀을 짚어 입에 넣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사울왕은 맹세코 요나단을 죽이려 했으나 백성들의 탄원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삼상 14:27-52).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요나단은 그의 무용과 신앙에 감동되어 그를 영원한 벼으로 받아들이고 생사를 같이할 것을 맹세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나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삼상 20:17)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으로 인하여 몇 차례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었으며 이 은공의 보답으로 다윗은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한 후 그의 절족 발이 아들 므비보셋에게 극진한 후의를 베풀었다(삼하 9:1 -13).

이들의 우정은 창공의 태양같고 황야의 꽃처럼 맑고 아름다운 것으로 참 신앙인들만이 쌓을 수 있는 금자탑과도 같은 것이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기관별 정기총회 / 11월 3일~10일
2. 가을대심방 / 11월 5일~29일
3. 율동단 헌신예배 / 11월 10일 오후5시
4. 추수감사절예배 / 11월 17일 오전11시
5.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 11월 17일 오후6시
6. 기관계획서제출 / 11월 18일~24일

◎ 공지사항

1. 11월 생활실천표어 / 네 그릇에 믿음만큼 채우리라
2. 11월 신앙서적 / 존 번연의 경외 ‘조엘 비키 & 스몰리

◎ 이달의 교우소식

1. 새가족등록 / 강경옥성도 - 충성구역 루디아여선
전도 : 송미정집사
2. 첫돌감사예배 / 민하울아동 - 11월 23일 오후6시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 : 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 : 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